

시간이 빚어낸 샴페인 팔머... “한국, 기대되는 시장”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레미 베르비에 샴페인 팔머 최고경영자(CEO)가 최근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몽타뉴 드 랑스 지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영FBC

식전주부터 시작해 가벼운 전채요리는 물론 육류를 주재료로 한 메인요리와 디저트까지 매 코스마다 샴페인이 등장했다. 완벽한 페어링이었는데 참석자들은 모두 놀라고 말했다. 알고보니 각 코스마다 내놓은 게 사실은 같은 샴페인이어서다. 프랑스 샴페인 하우스 팔머가 좋은 해에만 만든다는 빈티지 샴페인 그랑 페루아 2003빈티지를 선보일 당시의 일화다.

“좋은 와인은 좋은 와인이다(Good wine is good wine).”

레미 베르비에 샴페인 팔머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메트로경제와 인터뷰를 갖고 “샴페인은 와인 중에서도 가장 다재다능(versatile)하다”며 “팔머 샴페

인은 신선함과 자연스러운 힘, 복합미로 어느 장소든, 어떤 음식과도 잘 어울린다”고 강조했다. 이후 진행된 소믈리에 디너에서도 디저트까지 모든 코스에 와인인 샴페인으로만 매칭토록 했다.

샴페인 팔머는 지난 1947년 프랑스 샹파뉴 지역에서 7명의 포도 생산자들

이 최고의 샴페인을 만들기 위해 설립한 곳이다.

샴페인 팔머를 두 가지 키워드로 설명한다면 ‘시간’과 ‘균형’이다.

먼저 시간이다. 시간은 팔머가 샴페인을 만드는데 필수불가결한 요소 중 하나다. 모든 샴페인이 법으로 정한 규

정이나 일반적인 샴페인들보다 2배 이상 숙성 기간이 길다.

베르비에 대표는 “시간은 와인을 연마한다. 샴페인에 시간이 입혀지면서 과일과 꿀 등의 기본적인 샴페인 아로마에 초콜릿과 커피까지 복합미가 생기고, 입안에서는 공격적이었던 산도가 신선하고 우아해진다”고 설명했다.

논빈티지는 최소 3년 동안 숙성하고, 빈티지 샴페인은 무려 6~8년 동안 오랜 시간 효모 침전물과 함께 천천히 숙성한다.

다음은 균형이다. 얼마의 시간을 들이더라도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는 바로 궁극의 균형이다. 1947년에 설립됐으니 70년이 넘었지만 이 목표는 변함이 없다.

베르비에 대표는 “팔머에서는 설립 이후 양조해 저장한 모든 빈티지의 퀴베를 2년마다 모두 테이스팅한다. 신선함과 복합미, 강도까지 어느 것 하나 튀지 않게 균형을 맞추는 스타일 면에서는 어떤 빈티지를 맛봐도 똑같다”고 전했다.

‘샴페인 팔머 라리저브’는 팔머 스타일을 가장 쉽게 설명하는 와인이다. 꽃향기와 잘 익은 과일, 고소한 토스트향까지 복합적이고, 신선해 마시기 쉬우면서 여운은 길다.

‘샴페인 팔머 로제 솔레라’는 솔레라 방식을 적용한 유일한 로제 샴페인이다. 솔레라는 오래된 와인에서 일부를 빼서 쓰고 그만큼을 새로 만든 해의 와인으로 채우는 작업을 말한다. 깊은 복합미와 신선함을 동시에 갖췄고, 혼연과 향신료향까지 인상적이다. 공을 들인 만큼 평가도 좋다. 국제주류품평회인 IWSC에서 로제로는 가장 높은 점수인 98점을 받았다.

한국 와인 시장에 대해서는 성장 잠재력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한국의 소비자들은 와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샴페인 하우스 입장에서 한국 프리미엄 샴페인의 성장이 크게 기대되는 국가”라고 말했다.

/smahn1@metroseoul.co.kr

주말은 책과 함께

생생한 묘사로 풀어낸 잊을 수 없는 이야기

노벨 문학상 수상자의 소설을 원서로 읽는 기쁨을 만끽하고자 책장에 꽂혀 있던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를 집어 들었다. 한국인의 한 사람으로서 마주하기 두려워 회피해왔던 슬픔과 한의 정서를 절절히 느끼게 됐다. 작가가 책에서 다룬 이야기가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 들불처럼 일어난 민주화운동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5·18 민주화 항쟁을 경험한 시민들의 입을 통해 당시의 참혹한 현장을 생생히 묘사해낸다.

‘소년이 온다’는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모두가 무언가를 끊임없이 찾아 헤매는 이야기다. 소설 속 등장인물들은 생이별하게 된 가족과 친지, 친구의 생사를 몰라 애틀 태우고, 누군가는 그날 대체 자신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려고 애쓰며, 어떤 이는 진실을 전제 내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작가는 동호의 이야기로 소설을 연다. 그는 친구가 군인들이 쏜 총을 맞았다는 말을 듣고 도청 상무관에 단장을 찾으러 갔다가 시신의 신원을 확인하는 일을 돕게 된다. 상무관 출입구 탁자 앞에 앉아 장부를 펼쳐놓고 죽은 사람의 이름과 일련번호, 전화번호, 주소를 식육절 경지에 큼직하게 옮겨 적던 동호의 앞에 밤색 두루마기 차림의 노인이 나타난다. 누구를 찾아 왔느냐 그의 물음에 노인은 이가 빠져 불분명한 발음으로 “우리 아들하고 친네.”라고 답한다.

노인은 화순에서 군인들 안 지키는 산길을 겨우겨우 넘어왔으며 거친 숨을 몰아쉰다. 입가의 희고 성근 터럭들에 회색 침방울이 맺히는 걸 보며 동호는 생각한다. 평지도 잘 걷지 못하는 이 할아버지는 어떻게 산을 넘어온 걸까.

“우리 막둥이는, 병어리여... 어려서 열병을 앓아서 말을 못해. 엇그저께 광주서 내려온 사



소년이 온다
한강 지음/창비

람이 그란다, 시내에서 군인들이 병어리를 곤봉으로 두드려 죽었다고, 벌써 오래되었다고 그래서. 글고 우리 큰아들네 친네는 전대 앞에서 자취함서 학교 망킨다. 엇저녁에 집에 가본게 행방불명이라여.”

동호는 노인을 시신 더미 앞으로 데려가 피와 진물로 꾸덕꾸덕 얼룩진 흰 무명천을 들춘다. 꾸깃한 가제 손수건으로 코를 막고 앞서 걸어간 노인은 흰 천 위로 드러난 얼굴들을 하나하나 살피며 체머리를 흔든다.

곤봉으로 맞아 오른쪽 두개골이 움푹 함몰돼 뇌수가 보이는 젊은 여성, 깊은 갈자국에 얼굴이 벌어져 이목구비를 분별하기 어려운 시신, 왼쪽 가슴과 옆구리에 수차례 대검으로 그른 자상이 난 시신이 눈앞에 어른거린다.

침묵하며 누워 있는 사람들과 지독한 시위. 이승에서 가장 끔찍한 것을 본 사람처럼 꿈적거리는 노인의 두 눈을 보며 너는 다짐한다. “아무 것도 용서하지 않을 거다. 나 자신까지도.”

216쪽. 1만5000원. /김현정 기자 hjk1@

부의 제한선

1960년대 인도보다 소득이 낮았던 대한민국은 현재 백만장자의 수가 세계에서 10번째로 많은 나라로 성장했다. 허나 한국은 여느 선진국 이상으로 부의 불평등이 심각하다. 상위 10%가 전체 부의 절반 이상인 53.3%를, 상위 1%는 전체 부의 22.3%를 거머쥐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왜 가난에만 주목하고 부의 제한선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 걸

까. 저자는 안전판이 부실하고 불평등이 심화되는 사회에서 극단적인 경쟁만 지속된다면 필멸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며 양극화 시대의 대안으로 ‘부의 제한주의’를 제안한다. 책은 부의 극단적 집중화는 사회의 응집을 해칠 뿐만 아니라 생태적 지속 가능성에도 위배되는 일이라고 설명한다.

416쪽. 2만2000원.



잉그리드 로베인스 지음/김승진 옮김/세종서적

왜 미국은 이스라엘 편에 서는가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지원하기 시작한 미국은 냉전이 종식된 이후에도 중동의 골리앗을 두둔하는 비합리적인 행동을 지속하고 있다. 2024년 현재 미국은 ‘국경 정책 강화’, ‘이스라엘에 지속적인 안보 지원’을 내걸며 치열한 대선 전쟁을 펼치는 중이다. 허나 이스라엘은 미국의 휴전 촉구를 거부하며 헤즈볼라를 공격해 중동 위기관

리 문제의 변수로 떠올랐다. 이스라엘의 행위로 가장 피해를 보는 건 방패막이가 된 민간인들이다. 저자들은 미국의 중동 정책은 오늘날 이스라엘을 대표적인 극우 국가로 변모시켰다고 평가한다. 미국 내 정책을 친이스라엘 방향으로 이끄는 로비 이익집단이 자유 국가 미국을 어떻게 망가뜨리고 있는지 까발리는 책.

508쪽. 2만4000원.



존 J. 미어사이어, 스티븐 M. 윌트 지음/김용환 옮김/크레타

불안을 철학하다

불안은 살아있는 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고통이다. 책은 필멸의 고통을 실존의 용기로 승화한 철학자들의 사례를 통해 불안과 더불어 살아갈 방법을 알려준다. 불안을 철학적으로 들여다본다는 것은 단순히 불안에 반응하고 고통을 느끼는 게 아닌, 불안을 생각하고 반추한다는 의미다. 불안을 철학적 사유의 중심에 놓고 고찰한 붓다는 편하지 않고 조마조마

한 마음을 우리 자신의 본성에 대한 깊은 오해에서 비롯된 고통으로 본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우리가 불안을 떠안고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하며, 불안과의 투쟁을 기꺼이 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물론을 창안한 키를 마르크스는 사회·정치·문화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삶에 불안을 유발하는 원인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288쪽. 2만원.



사미르 초프라 지음/조민호 옮김/안타레스

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젤렌스키 “러시아에 北인력 지원 확인...사실상 참전”
▲ 다급한 해리스 중도보수 구애...트럼프, 히스패닉까지 공략 /사진 뉴시스

▲ 현대차 인도법인 IPO에 미지근한 반응...이틀째 청약률 42%
▲ 대만 TSMC, 3분기 순익 약 14조원...전년 대비 54% 급증



▲ 경제핵심 부동산 살려라...中 “자금난 업체 대출 340조원 추가”
▲ 日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10차 방류 개시...내달 4일까지 7천800t /사진 뉴시스